

‘해녀문화’ 전승보존의 과제와 전망

좌 혜 경 (해녀박물관)

1. 서언
2.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3.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등재기반 구축
4. 한·일 해녀 우호 교류
5. 생태 박물관(Eco-Museum) 변화 시도 및 해녀민속촌 조성
6. 결어

1. 서언

‘제주의 어머니’, ‘제주여성의 상징’으로 일컬어져 온 해녀가 남긴 해녀문화는 제주 전통 문화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녀문화는 세계적인 해양문화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컨텐츠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해녀’라는 그릇에 제주의 전통문화를 담으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서 제주문화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해녀와 같은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더불어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해녀들 연령층이 고령으로 40대 미만이 250명 정도에 그치며, 60~70대가 대부분으로 75%나 되고 있어서 해녀의 생업과 전승문화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현직의 해녀들이 고령이며, 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힘든 직종이며 몇 년 없어 사라질 그런 직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바다’라는 생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물질 작업을 하는 인간의 몸과 관련된 물질기술과 작업 도구를 사용했던 것, 물옷 등을 제작하여 합리적으로 입었던 것 등의 민속(토속)지식의 축적은 해녀의 생업과 문화 보존에서 중요한 요소다.

본 발표는 해녀문화전승보존과 관련한 해녀박물관의 여러 제반의 사업들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정 2009.11.4조례 제548호)에 따르면 조례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제주의 고유한 제주해녀문화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날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해녀문화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등 소중한 제주해녀문화를 문화·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제2조 ‘해녀’에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보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이다.

‘해녀문화’는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 기술, 어로 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제2항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다.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해녀 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 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또한 제5조 (위원회설치)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계획 수립
2.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3.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
4. 연구기관 위탁
5. 그 밖의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특히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의 설치는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및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 및 문화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고 되어 있다.

3. 유네스코(UNESCO)무형문화유산 등재

1) 국내법 지정 및 지정문화재 전승보존

해녀문화의 전승보존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들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필수요건은 등재조건 R5인데, 그간의 보호조치 및 현재 국내법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거나 보존 전승되는 것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곧 신청서에서는 “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나와 있듯이 해당 유산은 제출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들어 놓은 분류목록(inventory)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필수조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녀문화와 관련한 대표목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가 지정(1971)되어 전승보존 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재 민속자료 제 10호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2008)가 있다.

시급히 지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는 <제주해녀의 물질 작업과 기술>, 민속자료로 <작업장·불턱·해신당>, <작업도구와 옷 제작기능>, <무속의례>가 포함된다.

해녀의 공동체 문화인 ‘불턱’, 신앙의 성소 ‘해신당’, 대표적인 무속의례인 김녕리 ‘잠수굿’, 어촌계문서 작업도구 등의 자료조사, 일본과의 공동 등재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다. 즉 일본 여성 나잠업자들의 아마(海女)문화인 ‘노시아와비(熨斗鰯)’를 만들어 이세신궁(伊勢神宮)에 바치는 의식’ 혹은 해상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아마마쓰리’ 등에 잘 남아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전승보존

가. 보유자 : 강등자(구좌읍 행원리) · 김영자(구좌읍 행원리)

나. 전승보급 및 대내외 홍보 : ‘07. 01 해녀노래 CD제작

다. 지속적인 해녀노래 전수교육 및 공연

- '07~'09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호)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
- '09. 3~'09. 8 찾아가는 해녀노래 교육실시(10개 어촌계 300명 교육)
- 09. 9~10. 6 '해녀노래' 공연 개최 (매주 토 15:00~ 17:00)
- 10. 7 '해녀노래' 공연 지속적 개최 (매주 토 15:00 - 17:00)



어업노동요 전수교육

3) 해녀박물관 현장조사 및 자료집 발간

- 海女博物館編, 『바당의 어멍-제주해녀』, 出版社: 제주کم, 2007.
-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2009. 2)
 - 목적: 제주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제주해녀 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2006. 7~2008. 8까지 해녀문화탐방으로 조사된 자료로 자료집 간행 500부(16절, 500p, 출판사: 하나 CNC)발간
 - 내용: 제주도내 100개 어촌계를 해녀수와 작업 현황, 바다 어장의 실태, 공동체 규약 및 무속의례, 해녀노래 채록, 해녀생애력, 해녀언어와 문화 등
- 『제주해녀사료집』(2009. 12)
 - 목적: 제주 해녀문화 역사적 사실규명 및 연구, 전승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2006. 7 ~ 2009. 10 (3년간)조사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집 500부 발간 (16절, 320p, 출판사 : 경신인쇄사)
 - 내용 : 고문헌(정사류, 사찬읍지류, 개인문집류)속의 해녀기사, 제주해녀항일운동관련 신문기사(1920~1932), 1제주해녀의 권익옹호 및 복지, 사회, 경제 관련 신문기사(1950~1970)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해녀노래집

- 『제주해녀노래집-이여이여 이여도사나』(2010. 4)
 - 목적: 제주 해녀문화 연구 및 전승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제주 해녀노래의 정서 가치 확인 및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2008. 1. 1 ~ 2009. 12. 31 (2년간) 제주해녀노래 보유자 및 해녀 생애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집 500부 발간(18절, 300P, 출판사: 도서출판 각)
 - 내용: 1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보유자 강등자·김영자의해녀노래와 생애담을 정리하였고, 2부는 ‘해녀들의 정신, 그들의 정서’로 해녀노래 가사를 내용별로 분류 정리하였으며, 3부는 해녀노래 가창기능과 사설능력이 출중한 해녀들을 선정하여 ‘해녀노래 누가 잘 불렀나’로 정리하였다.



제주해녀노래집-이여이여 이여도사나

4) 제주해녀 학술적 가치 정립

- 제1회 제주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 '06. 6. 7 ~ 6. 8
 - 주제 :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 제2회 제주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 '07. 10. 25 ~ 10. 26

- 주제 :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방향
- 제3회 한·일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 '08. 6. 20 ~ 6. 21
 - 주제 : 한·일 해녀 생업과 문화유산
- 제4회 제주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 : '09. 6. 8 ~ 6. 9
 - 주제: 해녀의 무형문화유산 -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와 보호 대책

5) 해녀문화 전승보존의 장 마련

해녀축제는 해녀문화 전승보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 축제의 효과를 보면,

- 가. 해녀들 생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과 역사, 문화 등 독특한 해녀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지역축제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 나. 제주의 전통적인 제주여성의 생업이며 여성 나잠업자는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직종으로 해양문명사적 가치 홍보가 가능하며,
- 다.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제주의 전통문화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과도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치를 내포하며
- 라. 인간의 한계이지 곧 죽음에 도전해서 작업하는 해녀들의 강인함과 도전정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으로 남은 해녀축제는 1966년 6월 28일 행해졌으며 개인경기로는 200미터 수영, 소라와 전복따기, 노젓기, 보물찾기, 릴레이, 미스잠수선발 대회, 우량의상상 등 개인상 수상. 장려상으로는 2개 종목 이상에 참가한 재능이 뛰어난 잠수로서 각 어협 별로 1명씩 시상한다.



해녀박물관 소장 (사진 서재철)

제3회 해녀문화축제는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세계적인 무형문화 축제로 확대하고

일본 아마와 출가 해녀와의 공동연대 결성 및 교류의 장이 가능하다.

□ 위 치 : 제주 전역 (어촌계 단위) 및 구좌읍 해녀박물관

□ 사 업 량 : 해녀문화행사(축제) 1식

- 전국 출가 해녀 및 제주도내 해녀 대 집합 물질 경연
- 해녀민속예술공연(초중고), 일본아마 초청 공연,
-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 체험, 불턱 체험 등

□ 사업기간 : '10. 9 ~ 10월중 탐라문화제 기간 중

□ 추진상황

- '06. 6. 9 : 해녀 민속 공연(축제)
- '07. 6. 9, 10. 9 (2회) : 해녀 민속 공연 및 해녀축제
- '08. 10. 10 ~ 10. 11 : 해녀민속축제



제2회 해녀축제

4. 한·일 해녀 우호 교류

한·일 해녀 교류 관련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엔기시키 (延喜式)(927년)의 주계식상(主計式/上)의 기사에 ‘탐라포(耽羅鮑)’가 등장하는 데, 이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의 종류, 혹은 제주도 해인(海人)이 잡은 전복, 탐라와의 무역에서 전해진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주도와 일본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007, p.30.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일본과의 학술적, 예능적인 교류를 살피면

□ 2006년

가. 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국제학술회의

- 기 간 : 2006년 6월 7일 ~ 6월 8일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주 제 : <제주해녀 :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 “海女에 대한 描寫 : 博物館의 可能性”
 - 이소모토 히로노리(일본 도쿠시마현립박물관)
 - “海의 博物學者의 두 가지의 生態戰略 : 特異성과 適應性”
 - 아키미치 도모야(일본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 2007년

가. 제2회 제주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 기 간 : 2007년 10월 25일 ~ 10월 26일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주 제 :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방향>
 - “일본 시마반도의 해녀”
 - 이시하라 요시카타(石原義剛, 바다박물관 관장)
 -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정책 이행을 위한 보존 및 활성화”
 - 오누키 마사코(大貫美佐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 “해변의 민속과 에코뮤지엄의 과제”
 - 가미노 요시하루(神野善治, 무사시노미술대학)



제2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 2008년

가. 제3회 한·일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

- 기 간 : 2008년 6월 20일 ~ 6월 21일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주 제 :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유산>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한,일 해녀문화의 발굴과 교류”
- 나가시마슌스케 (長島俊介, 가고시마대학)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나. 일본 미에현 도바시 - 아마도구 19점 기증식

- 일 시 : 2008년 6월21일
- 장 소 : 해녀박물관
- 참석자 : 미에현 도바시 이시하라 요시카타 바다박물관장
미에현 도바시 해녀 2명(中村、浜口)
- 日本 아마(海女)도구 설명 및 韓·日 海女 만남의 장 마련.



2008년 일본 아마도구 기증식

다. 제주해녀와 日本의 아마(海女) 특별전

- 기 간 : 2008년 6월 9일 ~ 6월 30일
- 장 소 : 해녀박물관
- 전시내용 : 제주해녀와 일본아마 사진 40점, 일본아마 도구 20점



2008년 제주해녀와 일본아마 특별전

라. 2008년 일본 도서학회(三重縣 鳥羽市) 학술발표 및

한·일 해녀문화 제주대표단 일본 방문(일본국 초청 및 방문)

- 기 간 : 2008년 9월 20일 ~ 9월 22일

(1) <세계무형문화재와 아마-한일 간의 유대관계와 미래>

- “志摩 半島와 濟州道の 海女の 交流에 대해서” 발표 (石原義剛, 海の博物館 館長)
- “濟州道 海女の 文化的 存在” 발표 (左惠景, 濟州道 海女博物館)



좌혜경 발표

(2) 한·일 해녀문화 제주대표단일본방문 및 해녀노래 공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담당사무관 양희범

- 해녀박물관 연구원 좌혜경
-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보유자 강등자, 김영자
- 제주특별자치도 우도면 잠수회 대표 채순옥



해녀노래 공연

□ 2009년

가. 제4회 해녀 국제학술 심포지엄

- 기 간 : 2009년 6월 8일 ~ 6월 9일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일본아마의 전통” - 다나베 사토루(일본 지바경제대학)

나. 제주도 해녀사진 일본 특별전 개최

- 기 간 : 2009년 10월 3일 ~ 10월 31일
- 장 소 : 日本國 미에현 (三重縣) 도바시(鳥羽市) 海の博物館
日本國 미에현 (三重縣) 지마시(志摩市) 海女資料館



<제주도 해녀> 일본 특별전

다. 일본열도 海女 大集合 제주해녀 참여 (일본국초청)

- 기 간 : 2009년 10월 3일
- 장 소 : 미에현(三重縣) 도바시(鳥羽市)
- 방문자 : 해녀박물관 좌혜경, 제주도 해녀 1명 등



일본아마 대집합

□ 2010년 이후 앞으로의 과제

가. 제5회 해녀 국제학술 심포지엄

- 기 간 : 2010년 10월 11일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나. 제주도 해녀사진 일본 특별전 개최 및 일본 아마 대집합

- 기 간 : 2010년 9월 25일 ~ 10월 25일
- 장 소 : 日本國 미에현 (三重縣) 지마시(志摩市) 지마시청(志摩市廳)

다. 일본 도바시, 시마시 제주시와 한·일 해녀우호 교류 요청

도바시·시마시의 해녀작업은 자연과 공생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보전을 배려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조어(釣魚)법·문화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와 후계자의 부족, 자원 감소가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어 전통문화를 후세에 계승하고 해녀작업을 재생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그 대처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럼에서는 해녀 상호간의 교류를 꾀함과 동시에 해녀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번, 요덴 유키오 주제주일본국총영사님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행정 차원에서도 교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해녀문화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한일 양국간의 우호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님께서 앞으로 저희들과의 의견교환 및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깊은 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와 같이 서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5. 생태 박물관(Eco-Museum) 변화 시도 및 해녀민속촌 조성

1) 해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홈스테이 및 음식체험, 물질체험이 가능

해녀박물관은 작업공간인 해녀마을의 모습과 주거생활, 바다어장의 생태, 작업도구와 옷, 불턱, 해신당, 해녀노래와 신앙 등 제주 해녀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전통을 전승 보존하는 해녀의 삶의 조사연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의 정적인 전시 관람의 한계를 극복.

2) 제주적인 박물관 구축시설 부족

- 특별전시실, 교육시설, 전시시설 등의 부족으로 많은 관람객 수용 불가

- 해녀 무형문화 유산(해녀물질, 민속공연 등)의 전승보전과 교육의 장 역할
- 어업노동요, 영등굿, 잠수굿 등 해녀문화 전수 홍보 담당
- 제주 민속의 현대적, 국제적 감각으로의 재해석과 민속예술 공연을 등

3) 초대형 아쿠아륨(해녀작업 관람 수족관) 및 대형 해녀상으로 랜드마크화

4) 이어도 과학기지 홍보관 등의 해양 문화 관련 전시관 및

무형유산 홍보 및 연구센터 등의 관련 부서 시설 확보

5) 국제적 명품 박물관 운영

- 해녀유물 및 무형유산에 대한 한·일 전시 및 공연의 서틀화 운영
- 일본 바다박물관등 해녀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동 조사연구 협정

6. 결론

이상에서 해녀문화의 전승보존의 과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현재, 직업인이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해녀가 어업인뿐만 아니라 해양문명사적 면에서도 문화적인 가치가 인정되어야하며, 세계적으로 여성 해녀가 있는 일본의 아마들과 교류를 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전승보전을 위한 유네스코등재와 같은 다양한 면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녀문화의 전승보전 조례안>에 따른 관련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해녀문화전승보존위원회>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海女文化」の伝承保存への課題と展望

チャ・ヘギョン（海女博物館）

1. はじめに
2. 海女文化の保存および伝承に関する条例
3. ユネスコ無形遺産の保護協約に基づく登録基盤づくり
4. 日韓海女の友好交流
5. エコミュージアムへの試みと海女民俗村づくり
6. 結びに

1. はじめに

「済州の母」、「済州女性の象徴」として言われてきた海女が残した海女文化は、済州の伝統文化を代表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海女文化は、世界的な海洋文化としての価値だけでなく、文化コンテンツとしての価値も十分である。「海女」という器に済州の伝統文化を盛ることによって、世界的な文化商品としての済州文化を世界へ広げることができると期待されている。

現在、海女たちは世界的に日本と、済州を含む朝鮮半島に分布していると報告されている。ところが、済州海女の年齢が高齢化し、40代未満が250人程度に過ぎず、60～70代がほとんどを占め75%にも達しているため、海女の生業と伝承文化が消え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懸念が広がっ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とりわけ、現役の海女が高齢だということに加えて、若い人々が好まない厳しい職種であるため、数年以内になくなる仕事をする人だという視点からではなく、彼女たちが「海」という生体環境に適応しながら自分達の海女漁をする、人間の体と関連したもぐりの技と作業道具、いそぎなどを作っていたことから、これらの民俗(土俗)知識の蓄積は海女の生業と文化保存における重要な要素である。

本稿では、海女文化の伝承保存と関連した海女博物館の諸事業を検討し、今後の課題と展望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2. 済州特別自治道の海女文化の保存および伝承に関する条例

2009年11月4日公表された条例第548号によると、条例制定の理由を次のように挙げている。

「済州の固有の済州海女文化は、世界的に希少価値のある文化遺産であることから関心が高まりつつあり、持続的な保存と管理が行われなければ、済州海女文化そのものがなくなる危機に処しているため」

そこで、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済州海女文化を継続的に保存・伝承させるために、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に登録させるなど、貴重な済州海女文化を文化・歴史的に正しく位置づけようとするされている。

第2条「海女」関連の用語の定義を見ると、現在、水産業協同組合に加入し済州特別自治道内の里海に潜って水産物を採取したり、過去にこのような仕事をしていた女性である。

「海女文化」は、済州海女が海女漁とともに生活の中で産み出された有・無形の文化遺産をいい、素もぐりの技術、漁労知識、信仰、唄、作業道具、衣服、共同体の風俗などを含むとされている。

第3条 済州特別自治道知事の責務を見ると、第2頁に5年単位で基本計画を樹立・施行するとされている。

1. 海女文化の発掘・調査・研究事業
2. 海女漁場の保護および管理
3. 済州海女関連の無形文化財や民俗資料のユネスコ(UNESCO)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および資源化
4. 海女文化のグローバル化および広報
5. その他、海女関連の各種施策の開発および推進戦略に関する事項

さらに、第5条(委員会)の11名以内の委員で構成され、次の事項を審議する。

1. 海女文化の保存および伝承計画の樹立
2. 海女文化の教育および伝授生の育成
3. 海女文化の伝授生の選抜
4. 研究機関への委託
5. その他、海女文化の保存および伝承に関する事項

特に、海女文化の保存および伝承委員会の設立は早急に行われるべきである。

第6条 委員会の構成に関する事項を見ると

1. 委員会は、一名の委員長と一名の副委員長を含む11名以内の委員で構成する。
2. 委員長は、行政副知事であり、副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選出する。
3. 委員の中、当然職の委員は、文化芸術および海洋水産業務の担当局長各一名とし、委嘱職の委員は、海女および文化関連の専門家の中から道知事が委嘱するとしている。

3. ユネスコ(UNESCO)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

1) 国内法の指定および指定文化財の伝承保存

海女文化の伝承保存についての議論の中で、最も効率の良い案として、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の登録が挙げられている。

無形文化遺産の登録の必須要件は、登録条件R5であるが、これまでの保護措置や現在の国内法で指定して保護されるか、または保存・伝承されるものに限っ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申請書には「協約第11条と第12条に載っているように、当該遺産は提出の当事国の領土内にある無形遺産のために作った分類リスト(inventory)に登録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必須条件になるわけである。

これと関連して、国内法として指定されている海女文化と関連する代表リストとして、済州特別自治道指定の無形文化財第1号「海女文化」が指定され(1971)され、伝承・保存されている。さらに、済州特別自治道指定文化財の民俗資料第10号「済州海女のいそぎと道具」(2008)がある。

早急に指定されるべき重要な文化財には、＜済州海女の海女漁の作業と技＞、民俗資料には＜作業場・プルク(火場)・海神堂＞、＜作業道具と衣服の製作機能＞、＜巫俗儀礼＞が含まれる。

海女の共同体文化である「プルク(火場)」、信仰の聖所「海神堂」、代表的な巫俗儀礼である金寧里の「チャンスク」、漁村契文書や作業道具などの資料調査、日本との共同登録も考慮すべきところである。つまり、日本の女海女の海女文化である「ノシアワビ(熨斗鮑)を作って伊勢神宮に奉納する儀式」、または海上安全や豊漁を祈願する「海女祭り」などがよく保存されていることを考えるべきである。

2) 済州特別自治道無形文化財第1号「海女唄」の伝承・保存

가. 保持者：カン・トンザ(旧左邑杏園里)、キム・ヨンザ(旧左邑杏園里)

나. 伝承・普及や内外への広報：2007年1月海女唄CD製作

다. 持続的な海女唄の伝授教育と公演

- 2007～2009 海女唄(済州特別自治道無形文化財第1号)保持者の伝授教育の実施
- 2009年3月～8月 訪ねる海女唄教育の実施(10の漁村契の300人を教育)
- 2009年9月～2010年6月 「海女唄」公演の開催(毎週土曜日15:00～17:00)
- 2010年7月 「海女唄」公演の持続的な開催(毎週土曜日15:00～17:00)



漁業労働謡の伝授教育

3) 海女博物館の現場調査と資料集の発刊

- ・ 海女博物館編、『바다의 어멍-제주해녀(海の母-済州海女)』、出版社: 제주컴、 2007.
英語版の写真集も発刊され、外国人にも海女を紹介できるようにした。
- ・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済州海女の生業と文化)』(2009. 2)
 - 目的: 済州海女文化のユネスコ無形遺産の登録基盤づくりに向けた基礎資料や済州海女文化の伝承保存へのデータベース化のために、2006年7月から2008年8月まで海女文化探訪によって調査された資料集を刊行。500冊(16節, 500p, 出版社: 하나 CNC)発刊
 - 内容: 済州道内の100の漁村契における海女の数と作業現状、漁場の実体、共同体の規約や巫俗儀礼、海女唄の採録、海女の生、海女の言語や文化等が盛り込まれている。
- ・ 『제주해녀사료집(済州海女資料集)』(2009. 12)
 - 目的: 済州海女文化における歴史的事実の解明や研究、伝承保存に向けたデータベースづくり、済州海女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登録やグローバル化のための基礎資料である。2006. 7 ~ 2009. 10 (3年間)調査・研究した内容に基づき、資料集500冊発刊(16節, 320p, 出版社: 경신인쇄사)
 - 内容: 古文献の中の海女記録、済州海女の抗日運動関連の新聞記事(1920~1932)、済州海女の権益擁護及び福祉、社会、経済関連の新聞記事(1950~1970)等が載せられている。



済州海女の生業と文化



済州海女史料集

- 『済州海女唄集-이여이여 이여도사나』(2010. 4)
 - 目的: 済州海女文化の研究や伝承保存に向けた基礎資料であり、済州海女唄の情緒への価値の確認や海女文化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の登録に向けた基本資料である。2008. 1. 1~2009. 12. 31 (2年間) 済州海女唄の保持者と海女の生涯話を調査した内容に基づき、資料集500冊発刊(18節、300P、出版社: 도서출판 각)
 - 内容: 1部は、済州特別自治道無形文化財第1号海女唄の保持者であるカン・ドンザ・キム・ヨンザの海女唄と生涯話をまとめており、2部は、「海女たちの精神、彼女たちの情緒」をタイトルにして、海女唄の歌詞を内容別に分類・整理し、3部は、海女唄の歌唱能力などが優れた海女たちを選んで、「海女唄、だれが上手く歌ったのか」にまとめた。



済州海女唄集：이여이여 · 이여도사나

4) 済州海女の学術的な価値の位置づけ

海女博物館の5回にわたる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は、済州海女の文明史的価値の位置づけとともに、韓国や日本、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フィリピンなどの海女、海洋、博物館およびユネスコ無形遺産関連の学者と専門家などの研究発表と討論の場を設けて、学術的な体系を構築し、一般の人々には持続的な伝承保存への関心を誘導する役割を果たした。

- 第1回済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06. 6. 7~6. 8
 - テーマ：済州海女：抗日運動、文化遺産、海洋文明
- 第2回済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07. 10. 25~10. 26
 - テーマ：済州海女の持続可能な発展と保存方向
- 第1回日・韓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08. 6. 20~6. 21
 - テーマ：日・韓海女の生業と文化遺産
- 第4回済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09. 6. 8~6. 9
 - テーマ：海女の無形文化遺産-ユネスコ代表リストの登録と保護対策

- ・ 第5回済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10. 10. 11
- － テーマ： 済州海女文化の伝承保存の課題と展望

5) 海女文化の伝承保存の場を設ける

海女祝祭は、海女たちにとっては誇りを待たせるだけでなく、文化の伝承保存の場を設けるとともに宣伝するための最も適したイベントだと言える。その祝祭により期待されている効果は、

- ・ 済州の伝統的な済州女性の生業であり、女性の海女は世界から見ても珍しい職種で、海洋文明史的価値に関する広報が求められており、
- ・ 海女たちの生業の持続可能な基盤づくりと歴史、文化などのユニークな海女の伝統文化の伝承保存に向けた地域祝祭として、観光インフラづくりが可能であり、
- ・ 海女祝祭は、済州女性を代表する象徴的な存在である海女とともに、済州の伝統文化を盛る大きな器のような潜在力を持つ存在価値を内包し、
- ・ 人間の限界意思、つまり死に挑戦して作業する海女のたくましさ挑戦精神を含むべきである。

記録上の海女祝祭は、1966年6月28日行われ、200メートルの水泳、サザエとアワビの採取、櫓こぎ、宝探し、リレー、ミス海女コンテスト、衣裳賞などの個人賞、二つの種目以上に参加した才能に優れた海女を各漁協別に1人ずつ選ぶ。



海女博物館所蔵(写真： ソ・ジェ Chol)

今後の海女祝祭は、海女文化のユネスコ登録に向けた世界的な無形文化の祝祭へと拡大し、日本の海女と出稼ぎ海女との共同連帯の結成や交流の場になるようにする。

参考に、海女祝祭の計画(案)を見ると、

- ☐ 位置： 済州全土(漁村契単位)および旧左邑の海女博物館
- ☐ 事業： 海女文化行事(祝祭)

- 全国の出稼ぎ海女および済州島内の海女大集合、海女漁の大会
- 海女民俗芸術公演(小中高)、日本の海女の招請公演
- 観光客とともにする海女体験、プルトク体験など

☐ 事業期間：'10. 9 ～ 10月中耽羅文化祭の期間、または海女漁の時期

☐ 推進状況

- '06. 6. 9：博物館の開館、チャス(海女)クッの公演
- '07. 6. 9, 10. 9 (2回)：海女民俗の公演および第1回海女祝祭海女
- '08. 10. 10～10. 11：第2回海女祝祭



第2回海女祝祭

4. 韓・日海女の友好交流

歴史上、日・韓海女の交流の記録をみると、延喜式(927)の主計式・上に耽羅鮑が登場するが、これは済州島で採れるアワビの種類、あるいは済州島の海人が採ったアワビが耽羅との貿易を通じて入ったものだとなれば、済州島と日本との間に交流があったであろうと思われる。(2007, p.30. 第2回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資料集、石原義剛, 海の博物館 館長)

日本との学術的、海女唄などの芸術的な交流を見ると、

☐ 2006年

あ、海女博物館開館記念の国際学術会議

・期間：2006年6月7日～6月8日

- ・主催：済州特別自治道の海女博物館
- ・テーマ：＜済州海女：抗日運動、文化遺産、海洋文明＞
 - “海女についての描写：博物館の可能性”
 - － 磯本宏紀(日本徳島県立博物館)
 - “海の博物学者의 두 가지의 生態戰略：特異性と適応性”
 - － 秋道智弥(総合地球環境学研究所)

□ 2007年

가. 第2回済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期間：2007年10月25日～10月26日
- ・主催：済州特別自治道海女博物館
- ・テーマ：＜済州海女の持続可能な発展と保存方向＞
 - 「日本志摩半島の海女」
 - － 石原義剛(海の博物館長)
 - 「ユネスコ人類無形文化遺産の政策移行に向けた保存や活性化」
 - － 大貫美佐子(ユネスコアジア・太平洋文化センター)
 - 「海辺の民俗とエコミュージアム」
 - － 神野善治(武蔵野美術大学)



第2回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2008年

가. 第3回韓・日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期間：2008年6月20日～6月21日
- ・主催：済州特別自治道海女博物館

- ・テーマ：＜済州海女(ヘニョ)と日本海女(アマ)の無形遺産＞
 “世界遺産登録に向けた日韓の海女文化の発掘と交流”
 - 長島俊介(鹿児島大学)



第3回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ナ. 日本三重県鳥羽市からの海女道具の寄贈式

- ・日時：2008年6月21日
- ・場所：海女博物館
- ・参加者：三重県鳥羽市海の博物館長石原義剛
 三重県鳥羽市海女 中村、浜口
 -日本の海女道具の説明及び韓・日海女の出会いの場



2008年の日本の海女道具の寄贈式

ダ. 済州海女(ヘニョ)と日本海女(アマ)の特別展

- ・期間：2008年6月9日～6月30日
- ・場所：海女博物館

- ・ 展示内容： 済州海女(ヘニョ)と日本海女(アマ)の写真40点、 日本海女の道具20点



2008年の済州海女(ヘニョ)と日本海女(アマ)の特別展

라. 2008年の三重県鳥羽市での日本島嶼学会における発表および日・韓海女文化の済州代表団の日本訪問

- ・ 期間： 2008年9月20日～9月22日

(1) <世界無形文化財と海女-日・韓の絆と未来>

- “志摩半島と済州道の海女の交流について” 発表 (石原義剛、海の博物館長)
- “済州道海女の文化的存在” 発表 (左恵景、済州道海女博物館)



発表者：チャ・ヘギョン

(2) 日・韓の海女文化 済州代表団の日本訪問と海女唄の公演

- 済州特別自治道文化振興本部長カン・ソンジン
- 済州特別自治道海洋水産局海洋担当事務官ヤン・ヒばム
- 海女博物館研究員チャ・ヘギョン

- 海女唄(済州特別自治道無形文化財第1号)保持者カン・トンザ、キム・ヨンザ
- 済州特別自治道牛島(ウド)面チャンス(海女)会の代表チェ・スンオク



海女唄の公演

□ 2009年

가. 第4回海女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期間：2009年6月8日～6月9日
- ・主催：済州特別自治道の海女博物館
“日本海女の伝統” - 田邊悟(日本千葉経済大学)

나. 済州道の海女写真の日本での特別展開催

- ・期間：2009年10月3日～10月31日
- ・場所：日本国三重県鳥羽市 海の博物館
日本国三重県志摩市 海女資料館



<済州道の海女> 日本特別展

다. 日本列島海女大集合への濟州海女の参加(日本からの招請)

- ・ 期間：2009年10月3日
- ・ 場所：三重県鳥羽市
- ・ 訪問者：海女博物館のチャ・ヘギョン、濟州道海女1人等



日本海女大集合

□ 2010年以降の交流と課題

가. 第5回海女国際學術シンポジウム

- ・ 期間: 2010年10月11日
- ・ 主催: 濟州特別自治道海女博物館

나. 濟州道の海女写真の日本特別展の開催と日本海女の大集合

- ・ 期間：2010年9月25日～10月25日
- ・ 場所：日本国三重県志摩市志摩市庁

다. 日本の鳥羽市、志摩市、韓国の濟州市との日韓の海女有効交流の要請

도바시·시마시의 해녀작업은 자연과 공생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보전을 배려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조어(釣魚)법·문화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와 후계자의 부족, 자원 감소가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어 전통문화를 후세에 계승하고 해녀작업을 재생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그 대처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럼에서는 해녀 상호간의 교류를 꾀함과 동시에 해녀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번, 요텐 유키오 주제주일본국총영사님과 우근민 특별자치도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행정 차원에서도 교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해녀문화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한일 양국간

의 우호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님께서 앞으로 저희들과의 의견교환 및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깊은 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와 같이 서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このような交流要請は、日・韓の海女交流に画期的な転換点を作ることができるが、海女(ヘニョ)と海女(アマ)との交流を通じて、韓国の文化財庁と日本の文化庁の協力の下、日・韓共同の「海女文化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が可能であろう。

5. 海女博物館のエコミュージアムへの変化の試みと海女民俗村づくり

1) 海女と地域住民とがともに運営する海女博物館

海女博物館は、作業空間である海女村の姿と住居生活、漁場の生態、作業道具と衣服、プルトク、海神堂、海女唄と信仰など済州海女の有・無形の文化遺産の伝統を伝承・保存する海女の生についての調査研究センター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博物館の静的な展示観覧の限界を乗り越え、地域の海女たちとホームステイや食べ物体験、海女漁の体験などができるようにする。

2) 済州的な博物館の施設の不足

- 特別展示室、教育施設、展示施設などの不足により、多くの観覧客の受け入れができないのが現状

- 海女の無形文化遺産(海女漁、民俗公演など)の伝承保全と教育の場としての役割
- 漁業労働揺、ヨンドンクッ、チャスクッなどの海女文化の伝授・広報
- 済州民俗についての現代的、国際的な感覚への再解釈と民俗芸術公演など

3) 超大型のアクアarium(海女漁の観覧水族館)および大型海女像をランドマークにする

4) イオド科学基地の広報館などの海洋文化関連の展示館施設の確保が求められる。

無形遺産の広報および研究センターなどの関連部署の施設の確保

5) 国際的な名品博物館の運営

- 海女の遺物や無形遺産に関する日・韓の展示と公演をシャトル化する
- 日本の海の博物館など、海女関連機関との共同調査研究協定

6. 結びに

以上で海女文化の伝承保存の課題を大きく三つの側面から考えてみた。

現在、職業人でありながら、生業を営む海女が漁業人だけでなく、海洋文明史的な面においても文化的な

価値が認められるべきであり、世界的に女性の海女がいる日本の海女たちと交流を重ね、韓国と日本が共同で伝承保全に向けたユネスコ登録のような様々な面における努力がなされるべきである。

とくに、＜海女文化の伝承保全の条例案＞による関連事業を計画し、審議する＜海女文化伝承保存委員会＞が早急に設けられるべきである。